

後黎 馮克寬(Phùng Khắc Khoan)의 北使 활동과 고향 문물

朴 現 圭(순천향대 중국학과)

- 一. 서론
- 二. 馮克寬의 생애
- 三. Phùng Xá(馮舍)의 馮克寬 문물
- 四. 馮克寬의 北使 활동
- 五. 결론

一. 서론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 역사는 오래되었다. 신라 崔致遠은 <補安南錄異圖記>를 지어 북부 베트남의 제반 모습을 언급하였다. 12세기 초 베트남 李仁宗(Lý Cà Đứ; 李乾德)의 양자였다고 알려진 李陽煥이 고려에 들어와 旌善 이씨의 시조가 되었으며, 13세기 초 李英宗(Lý Thiên Tô; 李天祚)의 아들이었다고 알려진 李龍祥이 고려에 들어와 花山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더욱 많아졌다. 양국의 사신들이 북경, 通州 등지에서 만나 교류하였고, 양국의 민초들이 해양 표류를 통해 상대국에 표착하였다.

전통 시기에 양국 문단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우호 교류는 1597년 조선 진위사 李暉光과 後黎 연공사 馮克寬(Phùng Khắc Khoan)의 만남이었다. 이들은 명나라 북경(연경)의 玉河館에서 함께 유숙하면서 시문을 주고받으며 양국의 문화와 풍속을 이야기하였다.¹ 이때 두 사람이 지은 시문은 양국 문단에 널리 퍼졌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피랍되었다가 다시 일본 선박에 고용되어 베트남을 3차례 다녀온 조선 문사 趙完璧이 있다. 조완벽은 이수광과 풍극관이 주고받았던 시문을 베트남 관리들이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랍된 지 10년 후 본국으로 귀환하여 이 사실을 조선 문단에 널리 알렸다.

2024년 11월에 필자는 하노이국가대학 교수 Dinh Khắc Thuân(丁克順)의 도움을 받아 풍극관의 21대손 Phùng Khon Thang(馮克成)을 만났고, 또한 풍극관의 고향 Phùng Xá(馮舍) 마을에서 관련 문물들을 답사하였다. 이번에 국내 학계에 풍극관 생애와 고향 문물, 그리고

¹ 이수광과 풍극관이 함께 유숙한 북경 玉河館은 명 南會同館이다. 오늘날 북경 東交民港과 正義路가 교차하는 서북단인 중국 最高人民法院 자리이다. 朴現圭, <明清 시대 북경 朝鮮使館 고찰>, <中國史研究>, 82집, 中國史學會, 2013, 쪽115-158.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2

北使가 되어 명나라에서 후려조의 국가 인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제반 사항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후려 풍극관이 거두었던 학덕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한국과 중국에서도 이수광과 풍극관의 우호 교류에 대해 널리 소개하고 있다.

二. 馮克寬의 생애

풍극관의 생애를 기록한 여러 문헌이 있지만, 《人物志》 <太宰梅郡公錄>과 《大越史記全書》가 가장 소상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태재매군공록> 기록에 풍극관이 재차 북사로 갔다는 잘못된 소문, 명나라 조정이 점성술을 통해 풍극관의 유배를 예지한 기록 등 민간 전설이 삽입되어 있다.

풍극관의 자는 弘夫이고, 자호는 毅齋이다. 고향은 山西 石室縣 馮舍 마을(현 하노이 Thạch Thất 지구 Phùng Xá)이다. 부친은 東關縣을 다스렸고, 훗날 敎伯에 증직되었다.² 1528년 정월에 태어났다. 풍극관은 소싯적에 총명하여 배우는 데 몹시 민첩하였으며 독서하기를 좋아했다.³ 부친에게 글을 배웠고, 나중에 阮秉謙(Nguyễn Bình Khiêm)에게 수학했다. 16세에 시를 잘 짓는다며 이름이 나고 《言志詩集》을 남겼다.⁴

23세가 되는 1550년에 후려 실권자 鄭檢(Trịnh Kiểm)의 밑으로 들어가 참모 역할을 하였다.⁵ 1552년에 후려가 실시한 향시에서 三場을 통과했고, 또 1557년에 秋試에서 四場을 통과했다. 이로부터 23년이 지난 1580년에 회시 제2갑 진사에 급제했다.⁶ 1561년에 딸 馮氏鳳을 낳았고, 1564년에 아들 馮克忠을 낳았다.⁷

1592년에 후려 鄭主의 제3대 鄭松(Trịnh Tùng)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조에게 빼앗긴 昇龍(현 하노이)을 수복하자, 풍극관은 그간 활약한 공로로 竭節宣力功臣에 봉해지고 特進金紫榮祿大夫에 오르며 馮舍 전지를 녹봉으로 받았다. 얼마 후 淸化, 義安 등처를 관장하는

² 《人物志》 <太宰梅郡公錄>: 「公姓馮, 諱克寬, 山西石室馮舍村人. 先考初任東關縣, 後贈迪敎伯.」

³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公生於戊子年正月日, 公質穎悟, 性眞率, 聞見甚敏, 書籍酷好.」

⁴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十六歲頗擅詩名, 有《言志詩集》.」

⁵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庚戌年, 公二十三歲, 杖策從龍在內壘, 未見帝, 隨車鄭世祖明康大王, 運籌帷幄.」

⁶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壬子年, 黎皇帝開鄉試科, 公年二十五, 試中三場. 丁巳年, 公三十歲, 秋試中四章, 再從征討. 庚辰光興三年, 公五十三歲, 會試中第二甲進士出身.」

⁷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甲申年, 公五十七歲, 生女子馮氏鳳. 丁亥年, 六十歲, 生男子馮克忠.」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3
承政使로 활약했다. 1595년에 工部左侍郎에 올랐다.⁸

1597년에 풍극관은 후려 세종(Lê Duy Đàm; 黎維潭)의 명을 받아 北使 정사가 되어 명 조정으로부터 후려조의 국가 인준을 받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599년에 吏部左侍郎이 되어 梅嶺侯에 봉해졌다.⁹ 1601년에 功臣田, 使臣田을 받고, 吏部左侍郎으로 옮겼다. 1602년에 호부상서에 오르고 梅郡公 작위를 받았다.¹⁰ 얼마 후 禁地에 營葬했다는 모함을 받아 義安 襄陽의 芒鵲에 귀양 갔다.¹¹ 이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마을 건설과 마을 복지를 위해 열성적으로 나섰다. 사원 앞의 日仙橋(Nhật Tiên kiều)와 月仙橋(Nguyệt Tiên kiều)를 중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편하게 해주었다. 또 Thày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들관으로 끌어와 양곡 증산에 나섰다.¹² 또 복사로 갔을 때 비단 직조법과 옥수수, 콩 씨앗을 가져와 고향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¹³ 1613년 9월 24일에 작고했다. 향년 86세이다. 太傅에 추증되었다. 1616년에 다시 太宰에 추증되었고, 1620년에 또다시 上等福神에 추증되었다.¹⁴

三. Phùng Xá(馮舍)의 馮克寬 문물

풍극관의 고향은 Phùng Xá(馮舍) 마을이다. Phùng Xá 마을은 하노이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5km, Thạch Thất 구에서 6km 떨어져 있다. Phùng Xá 마을의 중심에는 마을 수호신으로

⁸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至壬辰年, 收復京城, 公時已六十五歲. 天下初平, 奉給馮舍社爲寓祿, 封竭節宣力功臣, 特進金紫榮祿大夫, 清化義安等處贊治承政使. 乙未年, 升工部左侍郎.」

⁹ <<大越史記全書>> (黎紀)정유 22년 2월조: 「二十七日, 以工部左侍郎馮克寬爲吏部左侍郎, 封梅嶺侯.」

¹⁰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辛丑年, 奉增給石室燕山之鄧舍虬山二社爲寓祿, 及內壘功臣田及使臣田. 授吏部左侍郎. 壬寅年, 升戶部尙書, 爵梅郡公.」 풍극관이 이부좌시랑에 임명된 시기에 관해서는 문헌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월사기전서>>에서는 기해년(1599)이고, <<인물지>> <太宰梅郡公錄>>에서는 신축년(1601)이다. 본문에서는 <<대월사기전서>>의 기록을 따랐다.

¹¹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時有人誣告公營葬禁地, 被謫於芒鵲處.[在義安襄陽.]」

¹² <Phùng Khắc Khoan – nhà văn hóa lớn, nhà chính trị, nhà ngoại giao>, <<Nguori Ha Noi>>, 2023.11.7.

¹³ 潘輝注 <<歷朝憲章類誌>> <人物誌・勳賢之輔・馮克寬>.

¹⁴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癸丑年, 公 八十六歲, 卒. 贈太傅. 丙辰年, 又加贈太宰. 庚申年, 加贈封上等福神.」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4

받드는 Phùng Thanh Hòa(馮淸和) 사당이 세워져 있다. Phùng Thanh Hòa는 李南帝(Lý Nam Đế; 李賁) 시절에 우익 장군으로 활약했다. 546년에 An Hoa Trang(Phùng Xá 마을의 초명)을 지나가다 이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풍수를 보고 이곳에 자신의 저택을 지었다. 549년에 Phùng Thanh Hòa가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Từ Thân(慈親)으로 추대하였고, 훗날 그의 저택은 사당으로 바뀌었다. 15세기 Phùng Gia Trang은 마을 이름을 Phùng Thanh Hòa의 성씨를 따서 Phùng Xá라고 바꾸었다. 1947년 프랑스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초토화 저항운동(Tiêu thổ kháng chiến) 때 대다수 건물은 해체되었다.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사당이 재건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보수와 중건 작업을 하였다. 1993년 1월 18일에 베트남 문화정보부로부터 역사 및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사당 건물은 베트남 전통식으로 세워졌다. 지붕에는 쌍룡이 날아가는 조각이 새겨져 있고, 벽면과 기둥에는 여러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신단 앞쪽에는 Phùng Thanh Hòa의 업적을 기린 '聖躬萬壽' 편액이 걸려 있다. 편액 양쪽에는 쌍학이 새겨져 있고, 각 글자 사이에는 해당 글자를 풀이한 시구가 새겨져 있다.¹⁵ 신단 안쪽에는 금색으로 화려하게 입힌 Phùng Thanh Hòa 신상이 모셔져 있다. 금칠 보좌에 앉아 있다. 얼굴은 황룡의 형상으로 꾸며져 있고, 머리에 금색 보관을 쓰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0일에 Phùng Thanh Hòa를 제향하는 행사가 열린다.

Phùng Xá 마을 안쪽에는 풍극관 분묘와 풍극관 사당이 있다. 풍극관 분묘는 풍극관 사당으로부터 북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봉분의 테두리는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상단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앞쪽에 동자상 1쌍과 향로 1기가 놓여 있다. 분묘 뒤편에는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제단에는 풍극관 화상을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분묘 주변에는 1857년과 1858년 阮朝 嗣德帝(Tự Đức đế; 阮福時) 시절에 풍극관의 업적을 기리는 석비 2기가 남아 있다.

풍극관 사당은 사후에 그의 고거에 세워졌다. 阮朝 때 개조되었고, 1907년에 대대적으로 증수되었다. 1990년 1월 9일에 베트남 문화정보부로부터 역사 및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었다. 사당은 베트남 전통식 건물로 아치형 지붕을 하고 있다. 사당 내부는 크게 중앙 신단, 좌·우측 신단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중앙 신단의 앞쪽에는 '中興功臣祠', '千古靈祠' 편액이 걸려 있다. 사당의 기둥에는 많은 영련이 걸려 있다. 이들 가운데 중앙 신단의 앞쪽 기둥에 새겨진 풍사 마을 출신 正總 馮克

¹⁵ '聖躬萬壽' 편액 풀이: 「貫三才爲聖, 天百數在躬.」, 「萬萬尋常士, 壽如南山同.」, 「四家仰學祝, 百福集村馮.」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5

胡이 지은 영련을 들어본다. 즉, “봉사 나서 문사를 北地에 알리고, 나라 다시 일으킨 사업을 南天에 떨쳤네,(奉使文辭名北地, 中興事業振南天)이다. 여기에서 풍극관이 세운 北地(명조)와 南天(대월)에서 이름을 떨친 활약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중앙 신단의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격벽이 있고, 그 안에 풍극관 신상이 모셔져 있다. 필자가 추정컨대 풍극관 신상은 1620년 풍극관을 上等福神에 추증할 때 처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19세기 이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대월 애국지사가 편찬한 <<인물지>> <태재매군공록>에 풍극관 신상이 사당에 모셔져 있다고 했다.¹⁶ 풍극관 신상은 좌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쓰고 있다. 신상은 금색으로 칠했다. 벽면에는 홍색 나무이고, 그 위에 금색으로 칠한 다양한 형상이 새겨져 있다.

좌측 신단에는 화가가 풍극관을 그린 원본 화상, 우측 신단에는 후대에 원본 화상을 다시 모사한 모사본 화상이 각각 모셔져 있다. 모사본 화상은 총 3본이 제작되었는데, 1본은 풍극관 사당, 1본은 베트남군사역사박물관(Bảo tàng Lịch sử Quân sự Việt Nam), 1본은 남딘(Nam Định)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아래에 원본 화상에 그려진 풍극관의 모습을 적어본다. 얼굴은 전반적으로 온화한 풍격을 띠고 있다. 즉, 다소곳한 눈매, 두꺼운 콧대, 기다란 귀, 불룩한 볼살을 가졌고, 흰 수염과 흰 귀밑머리를 드리우고 있다. 머리에는 흑사모를 쓰고 있다. 기린흉배를 단 황색 단령포를 입고 있고, 관대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고 있다. 양손의 손톱은 모두 길다. 왼편에는 황색 華蓋가 펼쳐져 있다. 탁자 앞쪽에 향로, 촛대, 찬합 등 제기가 놓여 있다.

아래에 잠시 풍극관의 원본 화상을 그린 화가의 국적에 대해 고찰해본다. 전해오기로는 풍극관이 복사에 나갔을 때 명나라 화가가 그렸다고 한다.¹⁷ 하지만 풍극관 화상에 그려진 여러 모습을 보면 풍극관 사후에 베트남 화가가 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를 적어본다.

첫째, 원본 화상의 풍극관 모습은 명 홍무제가 정한 조정 예법과 다르다. 명나라 조정은 인물의 품계에 따라 복장이나 색깔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원본 화상에 풍극관이 입은 단령포의 색깔은 황색이다. 황색 복장은 황실 인물만 착용할 수 있다. 풍극관 왼편에 세워져 있는 화개도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황색 물품이다. 단령포에 부착된 흉배는 기린흉배이다. 기린흉배는 황실의 대군만 부착한다. 베트남은 예로부터 중국과 달리 자주적 예법을 따르고 있다.

둘째, 원본 화상의 풍극관 모습은 복사 시절 때의 모습과 다르다. 이수광은 가까운 거리

¹⁶ <<인물지>> <太宰梅郡公錄>: 「今有傳神像在祠堂, 馮舍社二村同奉事。」 陳慶浩의 <<인물지>> 해제에 의하면 이 책자는 19세기 말 베트남 애국지사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越南漢文小說集成>> 책18),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2010, 쪽173~174.

¹⁷ Từ Khôi, <Trạng Bùng: Chọn triều cống hiến>, <<Đại Đoàn Kết>>, 2017.12.29.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6
에서 북사 풍극관을 바라보았다. 즉, 풍극관의 용모는 매우 괴상하고, 치아는 검게 물들었으며, 머리는 풀어 늘어뜨렸다. 소매의 통이 넓은 長衣를 입었으며, 僧巾과 비슷한 縑布를 써서 머리를 감쌌으며, 반 정도 남은 머리는 어깨너머 뒤로 늘어뜨렸다.¹⁸ 따라서 풍극관 원본 화상을 그린 화가의 국적은 명나라가 아니고 베트남일 공산이 크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풍극관을 대월(후려)의 국가 자존을 지키고 문화 위상을 드높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9월 24일 풍극관 기일이 되면 그의 업적을 기리며 제향을 올린다. 이때 풍극관이 즐겨 먹던 콩죽과 절임 요리를 올린다. 베트남에서는 풍극관 이름을 내건 거리와 학교가 있다. 하노이에는 Phùng Khắc Khoan 거리(Son Tay 타운과 Hai Ba Trung 지구)와 Phùng Khắc Khoan 고등학교(Phuong Mai 지구)가 세워져 있고, 호치민에도 Phùng Khắc Khoan 거리(제1군)가 있다.

四. 馮克寬의 北使 활동

여기에서는 풍극관이 북사가 되어 중조에서 활약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본다. 1591년에 후려 실권자 鄭松(Trịnh Tùng)은 대군을 거느리고 북벌에 나섰고, 이듬해에 막조의 수도 昇龍(하노이)를 차지했다. 이로부터 막조의 많은 신하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분분히 후려 鄭松에게 투항하였다. 하지만 막조는 북부 지역의 高平으로 물러가 군사력을 모아 반격을 준비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1596년에 후려조는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자 명 변경 토관들과 접촉하였다. 반면 막조는 후려조가 명나라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노력을 펼쳤다. 莫敬用은 명 변경 龍州로 가서 토관에게 뇌물을 주며 지금 후려의 집권자는 黎氏가 아니고 鄭氏이고 前黎朝의 자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 조정은 막조의 말을 믿고 左江兵巡道按察司副使 陳惇臨을 鎮南關으로 보내어 사실 조사에 나섰다. 이때 풍극관 일행은 鄭松의 명을 받고 전려조가 사용한 墨印 2매, 황금 1백 근, 백금 1천 량 등을 가지고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조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인지 끝내 무산되었다.¹⁹

1597년 2월에 명 委官 王建立이 사람을 보내와 會勘을 요청하자, 4월에 후려 세종은 鄭松의 호종 아래 鎮南關으로 갔다.²⁰ 진남관은 오늘날 베트남과 중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¹⁸ <芝峯集>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後>: 「使臣姓馮, 名克寬, 自號毅齋, 形貌甚怪, 涅齒被髮, 長衣闊袖, 用縑布全幅蓋頭, 如僧巾樣, 以其半垂後過肩焉。」

¹⁹ <大南寔錄前篇> 권1 <太祖嘉裕皇帝寔錄>: 「丙申三十九年(1596년)夏四月, 上扈黎帝如諒山. 先是莫敬用奔明龍州, 詭告于明曰: 今稱黎氏者鄭氏也, 非黎之子孫. 明人信之, 遣左江兵巡道按察司副使陳惇臨往鎮南關, 移書約以會勘黎帝. 先遣侍郎馮克寬等齎舊墨印兩顆, 黃金一百斤, 白金一千兩, 與國內耆老數十人同赴關. 陳惇臨復牒邀黎帝訂日到關, 至則明使托故不如期. 上乃扈黎帝還。」

²⁰ <대남식록전편> 권1 <太祖嘉裕皇帝寔錄>: 「丁酉四十年(1597년)春二月, 明又使者委官王建立赴關報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7
友誼關이다. 한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원래 이름은 雍鷄關이다. 1368년에 鷄陵關으로 고쳤고, 1405년에 다시 鎮夷關으로 고쳤으며, 1428년에 또다시 진남관으로 고쳤다. 1953년에 睦南關으로 고쳤다가, 1965년에 다시 우의관으로 고쳤다.

이때 명 王建立, 陳惇臨을 비롯한 廣西、思明、太平、龍州、憑祥 등 주변 관원들이 와서 통교를 경하하였다. 이로부터 후려는 비로소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즉시 후려 세종은 이번 기회를 잡아 공부좌시랑 풍극관을 正使, 太常寺卿 阮仁瞻을 부사로 삼아 명나라 북경으로 보냈다.²¹

이번 풍극관 일행은 걸으로 歲貢, 즉 세밑에 공물을 바치는 관례적인 외교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명나라에 후려조가 막씨 정권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한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통해 후려조의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중차대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다.

조선 이수광도 풍극관 일행의 사행 목적이 책봉에 있다고 적어놓았다. 즉, 안남(대월)은 본디 막씨 왕조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여씨 왕조에 의해 멸망되었다. 중조에서는 막씨 왕조가 자주 반역했다는 이유로 왕호를 혁파하고 都統使로 봉했다. 안남 사신이 여씨를 국왕으로 책봉해주기를 청하러 중조로 들어왔다.²²

풍극관 일행은 후려 세종의 명을 받은 즉시 사행에 나섰다. 이번 사행은 변경에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지만, 사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라 모든 채비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풍극관 일행이 가져간 물품은 군주의 몸을 대신한 金人과 침향, 상아, 白線香, 脂香 등 특산물로 이루어졌다.²³

이수광은 안남 사신, 즉 풍극관 일행이 1596년 7월에 본국을 떠났다고 했다.²⁴ 이 말은 1596년에 풍극관 일행이 鄭松의 명을 받아 북사가 되어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조의 방해로 끝내 무산된 사실을 가리킨다. 풍극관 일행은 진남관에서 계속 머물면서 명 토관들과 접촉하며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以會勘, 上復扈黎帝至關, 與王建立、陳惇臨行會勘, 交接禮相見甚歡, 自此南北復通。」

²¹ <<대월사기전서>> (黎紀)정유 20년 4월조: 「四月初十日, 帝整飭兵象, 過鎮南交關, 與明左江巡道按察副使陳惇臨, 及廣西、思明、太平等府, 龍州、憑祥等州官大行會勘交接禮, 各相喜賀, 自此南北兩國復通, 命工部左侍郎馮克寬爲正使, 太常寺卿阮仁瞻爲副使, 如明歲貢, 并求封。」

²² <<지봉집>>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後>: 「安南國, 其國王本莫姓, 中朝以其數叛逆, 革王號爲都統使, 至是爲黎氏所滅, 其使臣即黎氏請封而來者。」

²³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先是, 使臣馮克寬等貢賁物及代身金人、沈香、象牙至燕京。」 <<지봉집>>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後>: 「仍以囊中所齎土物白線香百枚脂香一器分送。」

²⁴ <<지봉집>>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後>: 「上年七月離本國, 使臣姓馮名克寬, 自號毅齋, 年踰七十。」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8

다음으로 풍극관 일행이 진남관을 떠나 북경으로 들어간 일정에 대해 알아본다. <대월사기전서>에 의하면 풍극관 일행이 1597년(光興 20) 4월에 진남관에서 출발하여 10월에 북경에 도달한 뒤 만력제를 알현했다고 했다.²⁵ 하지만 이 기록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수광의 <芝峯集>에는 풍극관 일행이 안남(대월)에서 출발하여 북경까지 들어온 일정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았다. 즉, 안남국은 북경에서 1만 3천 리 떨어져 있다. 안남(대월)에서 출발하여 양광을 경유해서 남경에 이르고, 또 남경에서 출발하여 북경에 도달하였다. 작년(1596) 7월에 본국에서 떠나 금년(1597) 8월에야 북경(연경)에 도달하였으며, 북경 옥하관에서 유숙한 기간이 또 5개월이 되었다.²⁶ 여기에서 풍극관 일행이 북경에 도달한 시점이 1597년 8월이라고 분명히 적어놓았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풍극관 일행이 북경에 도달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 풍극관은 북경에 도달할 시점에 때마침 명 만력제의 만수성절을 맞이하여 <만수성절경하시집>을 지었다. 명 만력제의 만수성절은 8월 17일이다. 이날 명 만력제는 만수성절을 맞이하여 관례에 따라 신하들을 선대 황릉에 보내 제사를 지냈고, 또 조선 진하사 沈喜壽 등 일행이 입궐하여 경하하는 의식을 맞이했다.²⁷ 이에 따라 풍극관이 북경에 도달한 시점은 1597년 8월임이 분명하다.

풍극관은 이번 사행에서 자신의 문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한 후려조의 국위를 드높인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월사기전서> (黎紀)정유 20년 4월조에서:

克寬至燕京，適遇明帝萬壽聖節。克寬上拜賀詩三十首，明武英殿大學士少保兼太子太保吏部尚書張位以萬壽詩集上進。明帝御筆批曰：賢才何地無之。朕覽詩集，具見馮克寬忠惻，殊可深嘉篤美。即命下刊板，頒行天下。於是朝鮮國使刑曹參判李睟光爲之作序。

풍극관이 연경(북경)에 도착하니 때마침 明帝(만력제)의 만수성절을 만났다. 풍극관이 대궐에다 <만수성절경하시> 30수를 바치니, 명 武英殿大學士少保 겸 太子太保 吏部尚書 張位가 <만수성절경하시집>을 진상했다. 明帝가 어필로 批하며 말하기를: “賢才가 어느 땅엔들 없으리오. 짐이 시집을 열람하니 풍극관의 충성스럽고 정성스러움이 갖추어져 아주 가상스럽고 도타우며 아름답

²⁵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初克寬以萬曆二十五年四月過關，至十月到燕京，拜謁明帝。」

²⁶ <지봉집> 권8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後>: 「安南國，距北京一萬三千里。自其國由兩廣達于南京，自南京達于北京。其國王本莫姓，中朝以其數叛逆，革王號爲都統使，至是爲黎氏所滅，其使臣卽黎氏請封而來者。上年七月離本國，今年八月方到北京，留玉河館又五箇月矣。使臣姓馮名克寬，自號毅齋，年踰七十。」

²⁷ <명신종실록> 권313, 만력 20년 8월 을해(17일)조: 「乙亥，以萬壽聖節遣候張炳等分祭九陵，伯陳如松祭景皇帝陵寢。……朝鮮國差陪臣沈喜壽等三十三員，進賀萬壽聖節，並奏經理事宜，給賞伴送如例。」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9

도다.” 즉시 판각하여 천하에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조선국 사절 형조참판 李睟光이 이를 위해 서문을 지었다.

《인물지》<태재매군공록>에도 상기 기록과 비슷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²⁸ 1597년 8월에 풍극관이 북경에 도달하니, 때마침 명 만력제의 만수성절이 열렸다. 풍극관은 이 소식을 접하고 명나라가 후려조를 바라보는 외교 시각을 바꿀 좋은 기회로 삼아 전력을 다해 《만수성절경하시집》을 지었다. 이때 각국 사신들은 만수성절을 축원하는 시를 각각 1수씩 지었는데, 풍극관은 무려 31수나 지었다.

다만 상기 기록 가운데 고찰해야 할 부분이 일부 보인다. 아래에 자세히 짚어본다.

첫째, 풍극관 《만수성절경하시집》의 편수 문제이다. 《대월사기전서》에는 풍극관이 《만수성절경하시》 30수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인물지》<태재매군공록>에는 풍극관이 《만수성절경하시》 31수를 지었다고 했고, 또 이수광의 <安南使臣萬壽聖節慶賀詩集序>에도 풍극관이 《만수성절경하시》 31수를 지었다고 했다.²⁹ 또 풍극관의 《梅嶺使華手澤詩集》에 수록된 《만수성절경하시》는 31수이다.

둘째, 《만수성절경하시집》의 각판 여부이다. 명 만력제가 풍극관이 바친 《만수성절경하시집》을 읽어보고 후려 사신 풍극관이 뛰어난 문재를 갖추었고, 또한 충직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하여 즉시 이 시집을 판각하여 천하에 반포하라고 명했다. 이 기록은 《인물지》<태재매군공록>이나 《梅嶺使華手澤詩集》의 말미에도 확인된다.

만약 이때 명 만력제의 명에 따라 《만수성절경하시집》이 각판되어 천하에 널리 유통되었다면, 후대에 편찬된 각종 장서목록이나 현 국내외 각종 도서관에서 해당 판각본의 존재가 확인될 공산이 높다. 그런데 현존본 《만수성절경하시집》은 모두 필사본이다. 물론 명 만력간본 《만수성절경하시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되지 못했지만, 해당 책자가 각판되었다는 기록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풍극관이 지은 《만수성절경하시집》이 명 만력제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또한 명나라가 후려조를 바라보는 외교 인식을 바꾸는 데

²⁸ 《인물지》<太宰梅郡公錄>: 「丁酉年四月日, 奉命北使, 時公七十. 適遇天朝萬壽慶節, 諸國使臣各獻詩一, 公獨獻詩三十一首. 天朝吏部尙書兼管禮部張位以公詩上進. 大皇帝御筆批云: 何地不生才. 朕覽詩集, 具見馮克寬忠悃, 殊可嘉美. 卽命印板頒行天下, 因賜'南國狀(壯의 오기로 추정됨)元'等字以榮之, [자주: 故俗號爲'狀馮公'.] 給之冠服.」

²⁹ 《지봉집》 권8 <安南使臣萬壽聖節慶賀詩集序>: 「今使臣馮公, 皤然其髮, 臞然其形, 年七十而顏尙韶, 譯重三而足不繭, 觀禮明庭, 利賓王國, 其所著《萬壽慶賀詩》三十一篇.」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10

좋은 계기가 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조선 사신 이수광이 <만수성절경하시집>의 서문을 작성한 과정이다. 상기 기록에 의하면 명 만력제가 <만수성절경하시집>를 보고 감동해서 각관하라는 명을 했고, 이에 이수광이 <만수성절경하시집>의 서문을 지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수광의 <지봉집>을 보면 의외의 결과가 보인다. 이수광은 풍극관의 요청에 의해 <만수성절경하시집>의 서문을 지었다고 했다.

아래에 조선 이수광과 후려 풍극관 사이에 이루어졌던 교류 과정을 자세히 적어본다. 이수광과 풍극관은 북경 옥하관에서 함께 유숙하였다. 이수광이 안남(후려) 사신의 문제를 알아보고 싶어 시험 삼아 먼저 장단구를 지어서 보내자, 풍극관이 곧바로 화답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국 사신 간에 본격적인 시문 교류가 이루어졌다. 풍극관은 이수광이 지은 시를 볼 때마다 무릎을 치고 감탄하며 大手筆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다가 풍극관은 이수광에게 <만수성절경하시집>를 보여주고 서문을 써주어 대수필의 은택을 입을 수 있도록 청하였다. 풍극관은 이수광이 지은 서문을 받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사조가 찬란하게 빛난다고 칭송하고, 답례로 白線香 100매와 脂香 1기를 보내주었다. 이수광은 백선향의 모습이 한 가닥 실과 같이 가늘고 길며 향이 매우 진하고, 지향은 폭 고은 기름과 같아 몸에 바르면 온종일 향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귀한 물품이라 칭송하였다. 이때 풍극관이 조선의 붓과 먹이 천하의 절품이라고 들었다며 나누어주기를 청하자, 이수광은 붓과 먹을 선물로 주었다.³⁰

풍극관은 북경 옥하관에서 5개월간 머물며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풍극관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후려 세종이 막씨 정권을 몰아내고 대월을 다시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자신의 군주에게 내린 봉호가 막씨 정권처럼 도통사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었다.

이어서 풍극관은 정성을 다해 자국의 입장을 담은 표문을 작성하여 명나라 조정에다 올렸다. <대월사기전서>에는 당시 풍극관이 올린 표문의 주요 내용과 명 만력제의 반응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풍극관이 올린 표문을 적어본다. 즉,

신의 주군 黎氏는 안남국왕의 적손으로 역신 莫氏가 찬탈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천년의 원수를 잊지 않고 와신상담하여 조종의 업을 다시 회복하고 조종의 자치를 이었다. 저 막씨

³⁰ <지봉집> 권8 <安南使臣萬壽聖節慶賀詩集序>: 「初欲觀其文體如何, 試製長句以送, 則使臣輒和之. 因此往復累度. 使臣每見晬光等所爲詩, 擊節稱賞曰: 文章高了, 自後必稱大手筆. 蓋以他國之文, 過獎如是也. 使臣且請曰: 不佞有<萬壽慶賀詩集>, 敢請使公序其端, 以沾大手筆澤云云. 求之甚懇, 屢辭不獲, 遂作書贈之. 使臣致序曰: 喜見使公詩序, 詞藻燁然. 過情之譽, 竊自恥之. 多謝多謝, 仍以囊中所齎土物白線香百枚脂香一器分送. 又曰: 聞貴國筆墨爲天下絕品, 願得之. 乃以筆墨若干與焉. 白線香者, 極細而長, 如一條線, 香氣甚烈. 脂香者, 爛煮如膏, 塗著身面, 經日不滅云.」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11

는 본래 안남국 여씨의 신하인데 군주를 시해하고 나라를 찬탈하여 실로 上國의 죄인이며 또한 몰래 도통사 직책을 구하였다. 신의 군주는 막씨의 죄가 없는데, 오히려 막씨의 직책을 받는 것에 대해 무슨 의리이옵니까? 폐하께서 널리 살피주시기를 원하옵니다.³¹

여기에서 풍극관은 막씨 정권이 행한 찬탈, 시해의 부당성을 비난하며, 또한 前黎朝의 정통을 이은 자신의 군주에게 내린 도통사 봉호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 만력제는 그대의 주군은 비록 막씨 정권과 비할 바가 없지만, 처음 나라를 다시 수복하여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며 잠시 도통사 봉호를 받고 나중에 국왕 봉호를 내려도 늦지 않다고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풍극관은 어쩔 수 없이 도통사 봉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³²

당시 명나라 조정은 변경 지역의 여러 정보를 통해 대월국의 원래 주군인 여씨가 막조를 물리치고 막조의 수도 昇龍(현 하노이)를 비롯한 대부분 국토를 다시 회복했던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나라 조정은 막조가 아직 북부 高平 일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모아 다시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신을 보내와 자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후려 세종의 봉호를 막조 太祖(莫登庸)의 경우처럼 도통사에 봉하였다.

여기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풍극관과 북경 옥하관에서 함께 유숙했던 이수광이 있다. 이수광은 풍극관과 교유하며 여러 편의 시를 주고받았다. 이때 이수광이 풍극관에게 준 <又贈安南使臣, 疊前韻>이 있다. 이 시의 제2수에서 풍극관이 上國(明)의 천추절을 경하하는 시를 지었고, 또 은혜롭게 명 황제가 내린 조서를 받았다는 시구(詩成上國千秋節, 恩荷重霄一札書)를 남겼다. 해당 자주에 풍극관 일행이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도통사 봉호를 받았던 것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놓았다. 즉, “명나라 조정이 끝내 후려 세종을 국왕으로 책봉해달라는 청을 인준하지 않고, 단지 예전처럼 도통사 봉호만 허락하였는데, 풍극관 일행은 그래도 희색을 띠며 서로 경하하였다.”³³

물론 이 시의 자주는 이수광이 추기한 기록이지만, 그가 풍극관 일행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목격담이라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 풍극관 일행이 이번 사행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반응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풍극관 일행은 이번 사행에서 기대한 최상의 목표에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외교

³¹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克寬乃上表曰: 臣主黎氏, 是安南國王之冑, 憤逆臣莫氏僭奪, 不忍負千年之讐, 乃臥薪嘗膽, 思復祖宗之業, 以紹祖宗之迹. 彼莫氏本安南國黎氏之臣, 弑其君而奪其國, 實爲上國之罪人, 而又暗求都統之職. 茲臣主無莫氏之罪, 而反受莫氏之職, 此何義也? 願陛下察之.」

³²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明帝笑曰: 汝主雖非莫氏之比, 然以初復國, 恐人心未定, 方且受之, 後以王爵加之, 未爲晚也. 汝其欽哉, 慎勿固辭. 克寬乃拜受而回.」

³³ <지봉집> 권8 <又贈安南使臣, 疊前韻> 제2수: 「詩成上國千秋節.」 자주: 「使臣有<<聖節慶賀詩集>>故云.」 동시 제2수: 「恩荷重霄一札書.」 자주: 「朝廷竟不準封王, 只許仍前爲都統使, 一行猶動色相賀.」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12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명나라가 자국의 군주에게 내린 봉호가 국왕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몹시 아쉬워하였지만, 막조 정권에게 내린 봉호와 똑같은 도통사였고, 무엇보다도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자국의 국가 존재를 인준받았던 점에 대해 상당히 고무되었다.

당시 후려조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후려조가 북쪽 일부 변경을 제외한 대부분 영토를 수복하기는 했지만, 아직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미묘하였다. 막조는 高平 일대에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또한 변경 토호들과 연계해서 조공과 뇌물을 통해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1596년에 후려조가 사신을 보냈으나 막조와 연계된 명 토호들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심지어 명 조정은 후려 세종이 과연 黎氏의 후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풍극관 일행은 절대 만만치 않은 외교 관계와 막조의 거센 방해를 극복하고 이번 사행을 통해 명 조정에다 막씨 정권이 본국 국왕을 시해하고 국가를 찬탈했던 극악무도함을 낱낱이 밝히고, 또한 본국이 정통성을 갖춘 나라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향후 대명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97년 12월 6일 풍극관 일행은 북경을 떠나 명 위관 왕건립과 함께 귀국 길에 올랐다. 이후 1년 정도 걸려 1598년 12월 15일에 진남관에 도달했다. 아마도 명 위관 왕건립과 동행하는 바람에 시일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추측된다. 후려의 실권자 제3대 鄭主인 절제 鄭松(Trịnh Tùng)이 우상 黃廷愛, 태보 鄭樞를 보내어 명 위관 왕건립 일행을 맞이했다. 동월 25일에 후려 세종이 紅河를 건너 菩提館에서 명 위관 왕건립을 맞이했다. 곧이어 내전에서 문무대신이 모인 가운데 도통사 책봉 의례가 펼쳐졌다.³⁴

이날 책봉 의례가 진행될 때 후려 군신들이 명나라 조정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불쾌하게 여긴 사건이 발발했다. 명 위관 왕건립이 가져온 도통사 봉호 인장의 재질은 은제가 아니고 동제였다. 후려 군신들은 동제 인장을 보고 불쾌했다. 명나라 조정이 내린 도통사 봉호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인다고 해도 도통사 인장의 동제 재질은 막조 정권에 내린 인장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었다. 1540년 명나라가 莫太祖(Mạc Thái Tổ; 莫登庸)에게 도통사 봉호를 내릴 때 하사한 인장의 재질은 은제였다.³⁵

이에 절제 鄭松은 위관 왕건립에게 불만 사항을 강하게 내비쳤다. 위관 왕건립은 자국의 조정 대신이 결정한 것이며, 후려 군신의 불만 사항을 자국의 조정에다 보고하겠다는 식으

³⁴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十二月初六日, 辭明帝回國, 前後凡一年餘四個月, 使道以通. 十五日, 克寬回至鎮南交關, 明左江官差委官王建立投遞公文赴京師. 節制鄭松差右相黃廷愛, 太保鄭樞整備儀衛迎接明使王建立與克寬等. 二十五日, 帝過江, 就菩提拜詔, 接使還于內殿. 節制鄭松與大臣文武人內殿朝謁.」

³⁵ 夏言 <<夏桂洲先生文集>> 권9 <勅安南都統使莫登庸>: 「皇帝勅令安南都統使莫登庸, 今革去安南国號王封, 特授爾都統使之職, 賜從二品衙門銀印.」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13

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³⁶ 17세기 후반기에 편찬된 ≪驩州記≫에도 대월 인사들이 전대에 일어났던 후려 세종의 도통사 봉호와 인장 재질에 대한 불만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³⁷

반면 高平으로 쫓겨난 막조는 대명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행했다. 명나라 변경 토관들을 통해 명 조정의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막조 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또한 후려조의 대명 외교를 방해하였다. 명나라 조정은 후려조가 대월의 거의 전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인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조와 외교 관계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전히 막조의 국가 존재를 인준하고 막씨 자손들에게 도통사 봉호를 내렸다.

五. 결론

전통 시기에 한국 문단에 가장 많이 알려진 베트남 인사를 꼽으라면 풍극관이 첫 번째이다. 1597년 조선 이수광과 후려 풍극관이 북경 옥하관에서 함께 머물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만났지만 마치 오랜 친우처럼 흥금을 터놓고 정을 나누었다. 이때 이들이 나누었던 우정과 수창한 시문은 양국의 문단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우연히 베트남에 들어간 조선의 조완벽을 통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풍극관은 7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후려 세종의 명을 받아 복사가 되어 명나라와 결고립고 복잡한 외교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업적을 거두었다. 풍극관은 명 만력제의 만수성절을 맞이하여 평소 닦았던 학문과 뛰어난 문재를 발휘하여 ≪만수성절경하시집≫을 지어 명 조정에 올려 보냈다. 그 결과, 명 만력제로부터 세상의 드문 인재임을 칭송 받았고, 또한 자국의 국가 존재를 인준 받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이번 풍극관 일행의 외교 성과는 후려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풍극관 일행은 막조의 방해 공작과 명나라와의 미묘한 외교 난관을 극복하고 자국의 국가 인준을 받아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명나라로부터 받은 봉호는 막조의 경추처럼 도통사에 그쳤다. 끝이어 명나라 조정이 내린 도통사 봉호 인장의 재질이 막조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동제였다는 점에 대해서 후려 군신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였다. 그런데 이수광이 바라본 풍극관 일행의 반응을 보면 의외이다. 풍극관 일행은 비록 최상의 외교 결과까지는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국의 자존을 지켰다는 점에서 사뭇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³⁶ ≪대월사기전서≫ (黎紀)무술 21년 12월조: 「勅書宣讀畢, 見所頒銀印一顆, 乃是銅印, 因與文武大臣議復回書與明國, 讓責明委官王建立回北國遞奏明帝.」

³⁷ ≪驩州記≫ 第3回 第2節 <毅皇帝進御東京, 馮克寬奉使北國>. 陳義의 ≪환주기≫ 해제에 의하면 이 책자는 17세기 후반 阮景桂 支係와 관련된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越南漢文小說集成≫(책7), 앞의 서지, 쪽269~271.

조선 안평대군과 명 예겸의 만남과 글씨(朴現圭) 14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풍극관을 대월(후려)의 국가 자존을 지키고 문화 위상을 드높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도심의 거리 명칭이나 학교 명칭, 그리고 풍극관의 고향인 Phùng Xá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ùng Xá 마을에는 풍씨 시조 사당과 풍극관 분묘와 사당, 풍극관의 옛 풍모를 엿볼 수 있는 풍극관 신상과 화상이 전해오고 있다. 마을 사람은 매년 음력 9월 24일 풍극관 기일이 되면 풍극관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마련해서 그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는 제향을 펼치고 있다. [達城園室; 甲辰陰臘月廿一日]

참고문헌

- 李睟光, 《芝峯集》(《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책6), 民族文化推進會, 서울, 1991.
- 馮克寬, 《介軒詩集》(《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책1), 復旦大學出版社, 上海, 2010.
- , 《使華手澤詩集》(《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책1), 復旦大學出版社, 上海, 2010.
- , 《梅嶺使華手澤詩集》(《越南漢文燕行文獻集成》 책1), 復旦大學出版社, 上海, 2010.
- 吳士連等撰, 孫曉等標點校勘, 《大越史記全書》, 西南師範大學出版社, 重慶; 人民出版社, 北京, 2015.
- 孫遜・鄭克孟・陳益源主編, 《越南漢文小說集成》,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2010.
- 夏言, 《夏桂洲先生文集》, (臺灣)國家圖書館藏明崇禎戊寅浙江按察使林日瑞刊本..

국문 초록

본 논고에서는 베트남 문사 馮克寬(Phùng Khắc Khoan)의 생애, 고향 문물, 北使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풍극관은 전통시기 한국 문단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베트남 문사이다. 1597년 조선 사신 李睟光과 後黎 사신 풍극관은 명나라 북경 玉河館에서 함께 유숙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우정을 나누었다. 이수광은 풍극관이 빼어난 문필로 작성한 《만수성절경하시집》의 서문을 짓고, 또한 풍극관이 후려조의 국가 인준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록으로 남겼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풍극관을 대월(후려)의 국가 자존을 지키고 문화 위상을 드높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수도 하노이와 대도시 호치민에서는 풍극관 이름을 내건 거리와 학교가 있다. 풍극관의 고향 Phùng Xá(馮舍) 마을에는 풍씨 시조 사당, 풍극관 분묘와 사당, 풍극관의 신상과 화상이 전해오고 있다. 매년 음력 9월 24일 풍극관 기일이 되면 촌민들은 풍극관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마련해서 그의 학덕과 업적을 기리는 제향을 지내고 있다.

주제어: 馮克寬(Phùng Khắc Khoan), 李睟光, <萬壽聖節慶賀詩集>, Phùng Xá(馮舍), 後黎,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교류

[Abstract]

Phùng Khắc Khoan's(馮克寬) Northern Diplomatic(北使) Missions
under the Later Lê Dynasty(Nhà Hậu Lê) and the Cultural Heritage of
His Hometown:

Focusing on His Meeting with Yi Sugwang(李睟光) of Joseon(朝鮮) in Beijing

Park, Hyun-Kyu(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life, hometown cultural heritage, and Northern Diplomatic(北使) Missions of the Vietnamese literatus Phùng Khắc Khoan(馮克寬).

Among Vietnamese intellectuals of the premodern era, Phùng Khắc Khoan is the most widely recognized figure in Korean literary circles. In 1597, while serving as an envoy of the Later Lê dynasty(後黎朝), he met the Joseon envoy Yi Sugwang (李睟光) in Beijing, where they both lodged at Yuheguan(玉河館), a designated residence for foreign diplomatic delegations under the Ming dynasty. During their stay, they engaged in profound intellectual exchanges, fostering a close friendship. Yi Sugwang, recognizing Phùng Khắc Khoan's literary talent, composed the preface to *Mansu Seongjeol Gyeongha Sijip*(<萬壽聖節慶賀詩集>), a collection of congratulatory poems written by Phùng Khắc Khoan. Furthermore, Yi Sugwang meticulously observed and documented Phùng Khắc Khoan's diplomatic endeavors in securing Ming China's formal recognition of the Later Lê dynasty, leaving a detailed record of his activities.

In contemporary Vietnam, Phùng Khắc Khoan (馮克寬) is revered as a figure who safeguarded the national dignity of Dai Viet (大越) under the Later Lê dynasty (後黎朝) and elevated its cultural prestige. His legacy is commemorated through various public dedications, with streets and schools bearing his name in both the capital, Hanoi, and the major metropolis of Ho Chi Minh City. In his hometown of Phùng Xá (馮舍), ancestral sites

associated with the Phùng lineage have been preserved, including a shrine dedicated to the progenitor of the Phùng family, Phùng Khắc Khoan's tomb and memorial shrine, as well as statues and portraits of him. Each year, on the 24th day of the ninth lunar month, the anniversary of his passing, the villagers hold a commemorative ritual in his honor, preparing the foods he was known to have enjoyed as a tribute to his scholarly virtues and enduring contributions.

Key words: Phùng Khắc Khoan(馮克寬), Yi Sugwang(李睟光), *Mansu Seongjeol Gyeongha Sijip*(《萬壽聖節慶賀詩集》), Phùng Xá(馮舍), Later Lê Dynasty(Nhà Hậu Lê: 後黎), Friendly Exchanges between Korea and Vietnam.